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111

JCCT 2024-7-13

천경자 그림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메이크업 양상 고찰

A Study on the Makeup Pattern of Female Characters in Cheon Gyeong-ja's Paintings

민혜별*, 전한성**

Hye-Byul Min*, Han-Sung Jeon**

요약 본고에서는 한국의 여성 화가 천경자(1924-2015)의 여성 회화를 중심으로 작품 속 표현된 메이크업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천경자는 한국 근대 전통적인 동양화적 중심의 틀을 벗어나 채색화를 구축시킨 대표적인 여성작가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세계를 펼친 작가이다. 특유의 특징적인 소재의 여성과 꽃을 통해 화려한 색채를 표현하여 자신의 내면세계와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여성 인물화를 통해 작품 속 표현된 메이크업에 대해 알아봄으로 다채롭게 표현되는 여성의 메이크업과 인물화 그림을 통해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작품의 특징적인 메이크업의 양상을 통해 표현된 색채와 회화 속 내포된 의미도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천경자, 인물화, 여성 이미지, 메이크업, 색채 심리, 피부톤

Abstract This study, we explored the representation of makeup in the artworks of Cheon Gyeong-ja (1924-2015), a female painter from Korea, with a focus on her women-centric paintings. Cheon Gyeong-ja,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Oriental framework of Korean modern art, emerged as a leading female artist who pioneered color painting. Through her distinctive techniques, she unfolded a world of art centered around women, using characteristic subjects such as women and flowers to express vibrant colors. This was aimed at clearly conveying the meanings she intended from her inner world to society. By examining the makeup depicted in female portraits, we investigated the diverse representations of women's makeup and its correlation with the painted figures. Exploring the characteristic makeup aspects in the artworks allowed us to delve into the inherent meanings embedded within the colors and paintings. Given the significance of this exploration in my life, I hope this translation serves the purpose well.

Key words : Cheon Gyeong-ja, Figure Painting, Female Image, Make-up, Color Psychic, Skin Tone.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메이크업'이란 자기 자신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연출 할 수 있는 표현의 도구이다.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고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얼굴의 부위를 강조하여 다양한 색채를 입히는 행위이다[1]. 오늘날 메이크업 뷰티 제품은 나날이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여성이 자신의 미를 표현하는 것 또한 다양해

*정회원, 동국대학교 뷰티아트케어학과 박사과정

**정회원, 동국대학교 뷰티아트케어학과 협력교수

(사범대 국어교육과 조교수)

접수일: 2024년 4월 17일, 수정완료일: 2024년 5월 17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5일

Received: April 17, 2024 / Revised: May 17, 2024

Accepted: June 5, 2024

*Corresponding Author: bananamja@naver.com

Dept. of Beauty Art Care, Dongguk Univ, Korea

지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에 맞는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를 통해서 색조 제품을 선택하거나[2], 피부톤에 따라 베이스 메이크업 색조를 선택하거나[3], 얼굴형에 따른 다양한 메이크업으로 자신을 표현한다[4]. 특히 여성에게 있어 화장품은 선택의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 화려한 색채감의 메이크업 제품은 더욱 그러한 여성의 욕망을 부추긴다. 화가의 팔레트처럼 여성의 메이크업 제품도 팔레트를 연상하게 한다. 그런 면에서 그림 속에 표현된 작가의 색채 기법과 여성 메이크업에 나타난 색채의 표현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닌 긴밀한 상관성이 있다. 특히 인물 중심의 그림과 메이크업은 입체감 속에서 각각 이미지를 통해 메시지를 드러내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사회 속의 여성을 표현하는 미적인 요소들은 예술가의 작품처럼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에 잔재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전형화된 문화가 내재해 있다. 이러한 전형적 문화 속에서 형성된 이미지는 모성주의, 결혼주의, 이상적 여성상 등으로 특정화된다. 한국의 근대 시기 수묵화로 대표되는 동양화 문화 역시 전형적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묵화로 상징되는 근대 동양화 문화에서 화려한 색채를 과감히 시도한 채색화의 대표적인 여성작가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천경자(1924-2015)는 다양한 여성의 이미지를 다채로운 색감으로 표현하였기에 주목할 만하다[5]. 천경자가 남긴 다채로운 색감을 자랑하는 인물화는 그 속에서 다양한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다. 색채라는 요소로 작가의 내면과 여성의 이미지를 각기 다르게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천경자의 여성 인물화 속에 표현된 얼굴의 색채 이미지, 메이크업의 양상 분석을 통해 그 속에 내포된 중층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이때 천경자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의 피부톤을 유형화하여 메이크업 양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림 속에 표현된 다양한 색채를 통해 작가의 심리와 표출 의도를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미(美)를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II. 여성 인물과 메이크업 분석 방법

여성의 이미지는 주로 메이크업, 헤어, 패션이라는

외적 치장을 통해 표현되고 인식된다. 그 가운데 메이크업은 여성 스스로 자아 만족감, 사회생활 속 타인과의 관계에서 표현의 도구이자 여성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중요한 요소이다[6]. 메이크업의 주된 소재인 얼굴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첫 번째 이미지이며, 개인을 나타내는 대표적 요소이다[7].

메이크업은 자신의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요소로 외적 열등감으로부터 탈피하게 하여 자신감을 줌으로써 사회 속 연출이 가능한 자아를 만들어 낸다. 메이크업은 크게 얼굴의 피부색을 표현해 주는 기초적인 '베이스 메이크업'과 눈과 입술, 볼 등에 색감을 더해 주는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나뉜다. '베이스 메이크업'은 자신의 피부톤에 맞게 피부의 결을 정리하여 나타내며 얼굴의 입체적인 실감을 위해 이마, 콧등, 턱 부위를 밝게 표현하는 것이고, '포인트 메이크업'은 색조로 얼굴을 선명하게 하는 것으로 눈, 입술, 볼, 얼굴 윤곽을 중심으로 표현한다[8]. 메이크업은 색상과 더불어 질감, 선의 형태로도 표현된다. 질감은 매트, 글로시, 펄감으로 나타내고 선의 형태는 굵기와 방향으로 표현한다[9]. 메이크업의 색조와 질감, 선의 형태는 강약의 조절로 이미지 표현이 달라진다. 어떠한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강하게 연출하거나 연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내기도 한다.

메이크업 콘셉트 또한 여성의 메이크업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10]. 이미지의 특징에 따라 '내추럴', '리블리', '아방가르드', '클래식', '시크', '매니쉬' 등의 콘셉트로 나타내거나, 계절을 나타내는 색상인 핑크, 블루, 갈색, 흰색 등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마릴린 먼로', '마돈나', '오드리 햅번', '트위기'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여성의 이미지를 특징삼아 콘셉트로 활용한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 콘셉트는 시간, 장소, 상황(T.P.O)에 맞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파티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는 상황과 사회적 예의를 갖춰야 할 상황에 맞게 해당 사회의 문화코드에 따라 적절히 표현되기도 한다. 여성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메이크업은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을 이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으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자기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11]. 메이크업은 여성의 단순한 미적 행위가 아니라, 한 사회 속에 위치한 자신을 나타내는 의사소통 및 자기성찰 방법으로써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천경자의 많은 작품 가운데 여성 인물화를 중심으로 메이크업 관점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인물화 55편 가운데 16편을 선정하여 여성 인물의 피부톤을 중심으로 그것을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색채 및 메이크업 관점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의도와 메시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도구 및 분석방법
 Table 1. Research Tools and Analysis Methods

연구 도구	분석 방법
천경자 인물화	천경자 인물화 55편 중 16편 선정
피부톤	피부톤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노란톤, 하얀톤, 연한핑크 피부톤)
선정 기준 : 색채, 메이크업, 그림 속 여성의 다양성	노란피부톤 2작품, 하얀피부톤 2작품, 연한핑크 피부톤 2작품 선정 후 집중분석
색채	여성 메이크업에 표현된 색채 분석
메이크업	그림 속 메이크업 특징 분석
작품 의미 분석	그림 속 내적 의미 분석, 예술작품과 뷰티 연관성

본 연구의 분석 도구로는 천경자 관련 도서와 공식 홈페이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 관련 연구물 등을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천경자의 여성 인물화 55편 가운데 16편 작품이다. 선정 기준은 인물화 가운데 여성의 인물 이미지가 중심이 되고 있는 작품으로, 기행 속 인물화, 초기 추상주의 인물화는 제외하였다. 선정된 16편의 작품을 피부톤으로 유형화하여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피부톤은 여성의 전체 이미지를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기에 메이크업과 긴밀한 관계에 놓인다. 메이크업 관점에서 피부의 색채는 여성의 여성성, 절제미, 방어기제, 강인함 등의 다채로운 이미지를 해석하는 매개이다. 따라서 피부톤별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여성 인물의 얼굴에 나타난 중층적 의미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분석 요소가 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천경자의 그림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의 피부톤은 대체로 ‘노란 톤’, ‘하얀 톤’, ‘연한 핑크 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노란 피부톤’은 오커 계열(Ochre)의 노르스름한 피부톤으로 동양인의 대표적인 피부색이다. ‘오커색’

이란 휴안료에서 만들어진 연한 황갈색을 가리키는 색 [12]으로 표현된 것이다. 둘째, ‘하얀 피부톤’은 고대부터 미의 상징인 색으로 희고 창백한 피부톤으로 표현된다. 셋째, ‘연한 핑크 피부톤’은 부드럽고 지적인 색으로 현대의 자유로운 자기표현과 자신감을 상징한다. 이러한 피부톤별로 유형화한 여성 인물화는 ‘메이크업, 색채, 여성 이미지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실행하였다.

현대 메이크업 관점에서 살펴본 천경자의 여성 인물화에 나타난 세 가지 피부톤이 갖는 각각의 의미와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III. 인물화에 나타난 현대 메이크업 특성

천경자의 그림 속 여성의 모습을 살펴보면, ‘피부톤’이 ‘하얀 톤’, ‘노란 톤’, ‘연한 핑크 톤’ 세 가지로 유형화되는데, 그러한 그림들 속에는 각각 공통적인 경향성이 발견된다. ‘노란 피부톤’은 강인함 속 슬픔의 감정이 나타나 있고, ‘하얀 피부톤’은 창백함 속 감정의 절제가 보인다. ‘연한 핑크 피부톤’은 지적인 이미지로 고상한 여성의 자유와 반항 심리가 표현되어 있다. 작품 속 메이크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눈과 얼굴선의 ‘음영감’으로 깊이감을 표현한 것이다. 눈과 얼굴선의 음영감은 디크레센도(Decrescendo)로 그라데이션(눈의 라인은 가장 진하게 위로 갈수록 연하게)하여 표현한 기법이 나타난다. 또한 눈동자의 동공(눈빛)을 강조하고 눈썹은 생략하거나 얇게 표현되었다. 여성의 이미지는 우수에 깃들인 슬픔 속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가 대체적이다.

먼저, ‘노란 피부톤’의 여성 인물화를 살펴보자. 위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길레 언니>, <수녀 테레사>, <장미와 여인>, <황금의 비>, <노오란 산책길>, <어느 여인의 시 I>, <어느 여인의 시 II>, <나비 소녀>, <윤사월> 등이 있다. 이들 작품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피부톤은 모두 노란 톤임을 알 수 있다. 이 그림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얼굴은 대체로 눈과 광대의 음영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눈 음영감은 그윽하게 보여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된 여성상들로 나타나며, 광대의 강조는 굵은 얼굴선이 표현되어 강인함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음영감의 표현들은 작가의 1980년대 화풍의 특징을 보여준다.

	
1-1 <길레 언니>, 종이에 채색, 26x41cm, 1973	1-2 <수녀 테레사>, 종이에 채색, 53x45.5cm, 1977
	
1-3 <장미와 여인>, 종이에 채색, 27x22cm, 1981	1-4 <황금의 비>, 종이에 채색, 34x46cm, 1982
	
1-5 <노오란 산책길>, 종이에 채색, 97x74cm, 1983	1-6 <어느 여인의 시II>, 종이에 채색, 60x44cm, 1985
	
1-7 <나비 소녀>, 종이에 채색, 60x44cm, 1985	1-8 <윤사월>, 종이에 채색, 25.8x17cm, 1987

그림 1. 노란 피부톤 계열의 작품
Figure 1. Artworks with Yellow Undertones

위의 그림 가운데 주목해 볼 것은 1-1, 1-4이다. 이 두 작품은 사회와 예술의 경계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여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가를 잘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1 <길레 언니>(1973)는 기억 속 실제 인물을 회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작가의 유년 시절 멧쟁이 선배 길레 언니를 주제로 하였고 모임에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온 모습을 회상하여 그린 작품이다[13]. 작품 속 여성은 순수한 눈매에 새침한 표정으로 표현되

었고 나비로 화려하게 장식한 모자를 쓰고 턱에 손을 피고 있는 모습은 여성스럽지만 강렬한 인상을 준다 [14]. <길레 언니>의 작품 배경, 의상, 피부톤 등에 나타나는 노란 색채는 작가의 대상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기억되고 싶은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그림은 순수한 동양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사실적으로 나타낸 작품으로, 여성 인물의 단아함과 청순함이 잘 표현되어 있다. <길레 언니> 작품은 1970년대의 시대적 특성에 부합하는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인식 속 여성이 추구하는 모습이자 미인상이라 할 수 있다.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이 표현된 이 작품은 고전미를 나타내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하나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적 행위가 시대의 여성 트렌드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록으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 작품 속 메이크업의 특징은 자연스럽고 가벼운 화장으로 ‘데이 메이크업(Day Makeup)’ 혹은 ‘내추럴 메이크업(Natural Makeup)’이다. ‘데이 메이크업’과 ‘내추럴 메이크업’은 자외선 차단제와 소량의 파운데이션으로 가볍게 하고 지나친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얼굴의 본래적 특성을 살려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15]. 입술의 화장은 기본 형태를 유지하여 자연스러움을 강조한다. 실제 인물을 표현한 그림으로 피부톤은 자연스러운 노란색 톤이다.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의 표현 또한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럽다. 천경자의 기존 작품의 여성들에게서 표현되는 다소 강조된 메이크업 양상과는 달리 자연스러움을 은은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유의 얇은 눈썹의 표현은 공통적이나 진한 눈의 색조 표현과 음영감이 생략된 것이 특징이다. 흔히 노란 색채 이미지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빛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 긍정감, 행복감, 자존감 등을 의미한다[16]. 이러한 메이크업 양상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 속에 자기 삶의 양식을 맞춰가며 자연스럽게 일상의 유행을 따름으로써 얻어지는 소소한 기쁨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시대양식과 자기 삶의 욕구가 불일치할 경우 노란 색채 이미지의 메이크업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1-4 <황금의 비>(1982)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금빛 색깔이며, 천경자 작가의 대표적 소재인 꽃다발과 나비가 여성 인물의 머리에 화관처럼 얹힌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17]. 갈색의 머릿결과 꽃

이 흩날리며 떨어지는 모습은 리듬감과 입체감을 보여 주고 있다. 노란 꽃잎과 하얀 나비가 어울려 환상을 자아내고 우수에 찬 눈동자, 오뚝한 코, 짝 다문 입술이 강한 인상을 준다.[18] 작품 속에 나타난 꽃과 나비, 태양을 상징하는 금빛의 색채는 고통의 삶 속에서도 환상적이고 화려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엿보인다. 평면의 그림 속에서 꽃이 떨어지는 느낌과 동적인 느낌의 나비가 주는 입체감은 뷰티 광고를 연상하게 한다. 그림 속 회화표현의 구성 요소가 아트 메이크업으로 재현되듯이, <황금의 비>에 나타난 여성을 상징하는 소재의 꽃과 나비가 작품에 크게 강조된 회화적 특징은 또 하나의 아트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여 뷰티 마케팅 및 광고 속 여성의 모습으로 재현할 수 있다. 이 작품 속 여성 인물의 메이크업 특징은 ‘웜 톤’(Warm Tone)의 색채 사용이다. 이는 신비스럽고 성숙한 느낌으로 계절의 메이크업 중 가을과 어울린다. ‘가을 메이크업’은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을 주고, 클래식하면서 격식이 있는 화장법으로 베이지톤, 브라운, 골드, 다크 옐로의 색채로 표현된다[19]. 피부톤은 작품의 금색빛의 색채와 어우러지는 노스름한 피부톤이다. 눈의 화장은 전체적으로 브라운 색상을 사용하였고 그림자를 표현한 듯 나타내어 눈매의 깊이감이 표현됨으로써 환상적 이미지를 자아낸다. 쌍꺼풀 없이 긴 눈은 검정색 아이 라인으로, 코끝 콧방울에는 하이라이트를 주어 하얗게 표현하였다. 얼굴선은 브라운색으로 광대에서 사선방향으로 음영을 주어 나타냄으로써 어딘가 슬픔을 안고 있는 느낌을 불러온다. 이렇게 따듯함과 슬픔, 지성과 환상성이 뒤섞인 노란 색채 이미지의 여성 인물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여성으로서 삶의 고통 속에서도 환상을 통해 자신을 긍정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천경자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노란 피부톤’은 한 여성이 자신이 속한 당대 사회문화를 긍정하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소소한 삶의 행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거나, 시대와의 불화 속에서 고통에 빠진 자기 삶을 어떻게든 환상적으로 긍정해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아트 메이크업 관점에서 사회와 여성의 삶을 주제로 나름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메이크업의 색채이미지는 당대의 사회이미지와 깊은 관계가 있다[20]. 예술가들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욕망과 결핍 사이

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에 섬세하게 포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낸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사회의 여성들은 시대적 자기 삶에 만족하며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삶의 고통을 메이크업을 통해 어떻게 개성적으로 해소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욕망을 미적으로 긍정화할 수 있는지 적극 고민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하얀 피부톤 계열의 작품
 Figure 2. Artworks with White Undertones

다음으로, ‘하얀 피부톤’의 여성 인물화를 살펴보자.

위의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청춘의 문>, <은전아 잘 있니>, <미모사 향기>, <아열대>, <고>, <꽃을 든 여인> 등이 있다. 이들 작품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피부톤은 모두 하얀 톤임을 알 수 있다. 이 그림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얼굴은 대체로 하얀 톤에 색조 화장을 절제하고 입술의 색조만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작품의 소재인 꽃과 하얀 피부톤의 조화로움은 여성 이미지에 몰입감을 주어 초연한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그림 가운데 주목해 볼 것은 2-1, 2-4이다. 이 두 작품은 작가의 예술적 상상력이 피부톤이라는 매개를 통해 작품 전체의 여성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2-1 <청춘의 문>(1968)은 스웨덴 출신의 전설적인 여배우 '그레타 가르보'를 모델로 그려낸 작품이다[21]. 그림 속 여성은 짙은 우수를 머금은 창백한 얼굴로 보랏빛 네모안에 떠올라 있는 형상으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숙명의 여성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22]. 인물화 속 여성의 창백한 얼굴과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은 상실과 낙심의 감정으로 초연한 여성상을 표현한 것이다. <청춘의 문>은 여성의 세련된 아름다움이 잘 표현되어 귀족적 취향의 이미지를 보여준다[23]. 이 작품 속 메이크업의 특징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아름다움과 세련된 미로 '엘레강스 메이크업(Elegance Makeup)'이다[24]. 엘레강스 메이크업은 눈매는 아이홀을 강조하여 깊이 들어간 듯 표현하여 그윽한 이미지로 나타내고 피부톤은 맑고 깨끗하게 표현하는 것이다[25]. 그림 속 여성은 엘레강스의 이러한 분위기의 피부톤이 잘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작품 속 여성의 피부톤은 희고 창백하게 보송보송한 질감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하얀 피부톤은 오랜 시간 여성의 아름다움의 표현이자 미의 상징으로 이상적인 피부색이었다[26]. 눈썹은 산을 앞쪽에 두고 그린 '아치형'으로 우아하고 도도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위쪽 속눈썹을 길게 강조하고 얼굴의 측면에 음영감을 주어 브이라인 얼굴형을 표현함으로써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색채를 통해 인물화 속 여성 이미지를 본다면, 회색이나 검정은 감정이 배제된 깊이 가라앉은 색으로 무기력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흰색과 검정(또는 회색)의 색채 대비는 차분하면서도 고고해 보이지만 현실의 장벽에 갇힌 여성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러한 메이크업 양상은 극도로 슬픈 감정을 내면으로 순화시키는 방식으로 엘레강스를 보여줌으로

'중용의 미'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27].

한편, 작가의 예술적 행위로 표현된 시대 속 인물이 주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하얀 톤'의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2-4 <아열대>(1977)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1950년대 섹시 아이콘의 대표적 인물로서 '마릴린 먼로'의 섹시 심볼(Sexy Symbol)의 이미지가 잘 나타나 있다. 인물화 속 '마릴린 먼로'는 섹시 아이콘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의 상징문화로 자리잡아 그 영향력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대상이다[28]. 작가는 예술적 상상으로 실존 인물의 특징을 화려한 색채와 꽃의 요소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29]. 여성의 화려한 아름다움과 그것의 허망함을 꽃을 통해 당대 유명 스타 마릴린 먼로의 화려함과 그 깊이 감춰진 비련의 삶을 중첩하여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시대의 관능적 대상의 아름다움이 표현된 이 작품은 섹시 심볼을 나타내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하나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적 행위가 시대의 아이콘을 보여줌으로 하나의 콘셉트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한 시대를 기억하는 기록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 작품 속 여성 인물의 메이크업 특징은 '글래머 메이크업(Glamour Makeup)'과 '레트로 메이크업(Retro Makeup)'이다. '글래머 메이크업'은 하얀 피부톤과 강렬한 레드립이 주된 특징이며, 입술을 아웃커브로 강조하고, 애교점으로 농염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30]. 눈썹은 아치형으로 가늘게 나타내고 인조 속눈썹을 바깥쪽으로 길게 붙여 인위적인 느낌을 살린다. '레트로 메이크업'은 과거 유행했던 메이크업 스타일을 재현하는 표현법으로 전성기 대상의 특징을 살려 재해석하는 메이크업을 가리킨다[31]. 작가의 상상력으로 표현된 여성 인물화 속의 '하얀 톤'은 정열적인 관능미의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대에 있어서는 맑고 깨끗한 피부로 잘 정돈된 여성 이미지를 상징하는 이상적인 피부톤[32]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메이크업 양상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 속에서 주체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적극성을 표현함으로써 자기표현의 욕구를 당당히 드러내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천경자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하얀 피부톤'은 여성 내면의 슬픈 감정을 내면으로 순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적이며 성숙한 여성미를 표현하거나, 시대 속 대상을 재해석하면서 전통적 성의 상징

에 대한 탈피와 여성의 쾌락과 권력을 지향하는 여성상을 표현하기도 한다[33]. 이는 메이크업의 콘셉트가 주체적 여성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서도 작품의 콘셉트 메이크업을 재현해 봄으로써 유교적인 여성상의 잔재에 대한 탈피와 독립적이며 자기표현의 당당함을 구현하는 자세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연한 핑크톤 계열의 작품
 Figure 3. Artworks with Light Pink Undertones

마지막으로, ‘연한 핑크톤’의 여성 인물화를 살펴보자. 위의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멀리서 온 여인>, <탱고가 흐르는 황혼> 등이 있다. 이들 작품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피부톤은 모두 ‘연한 핑크 톤’임을 알 수 있다. 이 그림들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얼굴은 눈썹은 생략되어 있고, 눈과 코의 음영감이 강조되어 지적이며 강인한 여성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물화 속 배경은 짙은 색채로 면의 요소를 표현하였고, 인물의 얼굴 근처에 파란색 장미꽃을 그려 넣은 것이 인상 깊다. 파란 색채의 이미지는 바다와 하늘의 상징으로 개방감, 광활함, 냉정함, 차가움을 나타낸다[34]. 얼굴의 핑크 톤과 파란색이 주는 색채의 부가적인 의미는 고상한 여성의 자유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두 그림에서 주목해 볼 것은 메이크업의 색채 이미지가 시대의 관념에 예술적 상상력을 더함으로써 색다른 의미를 창출하고 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 <멀리서 온 여인>(1977)은 개방적 여성의 자유와 이국적인 여성의 모습을 하나의 사진을 보여주듯 단면

적으로 포착한 작품이다. 천경자 특유의 화풍인 ‘선 질 기법’의 강렬한 표현법이 생략된 것이 특징이다. 작품 속 회화표현의 구성 요소 또한 색채를 중심으로 꽃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눈여겨 볼만하다. <멀리서 온 여인>은 단면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예술적 행위를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자유로운 여성 이미지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이 작품 속 여성 인물의 메이크업 특징은 낭만주의 이미지의 ‘로맨틱 메이크업(Romantic Makeup)’이다. 로맨틱 메이크업의 주된 색채는 핑크 색상으로 생기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핑크 톤 베이스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35]. 작품 속 여성 얼굴의 핑크 톤은 생동감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주는 효과로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여성상을 돋보이게 해준다. 여성의 얼굴은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여 높은 코를 나타내었고, 입술의 표현은 강렬한 주황빛으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메이크업 양상은 광활한 개방감의 여성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개별적인 주체로서 삶의 적극적 의지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시대양식과 작가의 상상력 속 여성상이 불일치할 경우, 핑크톤 색채 이미지의 메이크업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3-2 <탱고가 흐르는 황혼>(1978)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짙은 화장으로 선명한 이목구비가 표현되어 도시적 이미지가 강한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36]. 인물화 속 여성이 담배를 들고 측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은 사회에 대한 저항과 기존 답습에 대한 탈피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작품의 표현 기법 중 연기 속에 핀 장미의 상징은 작가가 추구하는 여성상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탱고가 흐르는 황혼>은 1970년대의 시대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상이라 할 수 있다.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의 관념에 반대되는 여성상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세상을 살아하고자 하는 당당함이 표현되어, 예술이 앞선 트렌드의 여성상을 제시하는 하나의 역사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예술 행위가 관념적 여성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여성상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다. 이 작품 속 여성 인물의 메이크업 특징은 ‘시크 이미지 메이크업(Chic Image Makeup)’과 ‘스모키 메이크업(Smokey Makeup)’이다. ‘시크 이미지 메이크업’은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의

스타일로 무채색의 검정색 단색을 주로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37]. ‘스모키 메이크업’은 뿌연 안개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눈의 라인을 강조하여 블랙 컬러로 눈이 덮인 듯이 표현하는 것이다[38]. 눈을 강조하기 위해 아이라인을 굵게 그려 준 후 짙은 블랙 컬러로 눈매를 안개가 피어오르듯 신비롭고 그윽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39]. 인물화 속 여성의 피부톤은 연한 베이지가 도는 핑크빛으로 지적이며 현대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얼굴선의 표현은 광대뼈 밑부분에서 블러셔(Blusher)를 사선 방향으로 선의 느낌을 강조하여 음영을 주어 턱선을 강조하고 있다. 눈썹은 앞쪽의 아치형으로 연하고 가늘게 표현하여 섬세하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콧방울은 하이라이트로 강조하였고 입술은 주황빛으로 진하고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흔히 핑크 색채 이미지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여성미의 이미지라고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작가는 이러한 상식을 깨고 색채의 이미지를 전형화하지 않고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사회에 대한 저항과 독립성을 지닌 여성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의 메이크업 양상은 여성 전유물의 색채 이미지를 탈피함으로써 개별적인 주체로서의 역동적인 여성상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는 시대를 넘어서고자 하는 한 여성의 불운하면서도 강렬한 저항의식을 그러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에 있어서 핑크 색채는 여성성, 사랑스러움, 낭만성, 온화함을 상징한다. 천경자는 동일한 색채를 쓰면서도 예술적 상상력으로 같은 피부 속 다른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성공하였다. 작가가 표현한 인물화 속 여성은 사회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여성의 전형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사회적 통념을 거부한다. 오히려 사회가 요구하는 바와 정반대로 귀엽고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움을 넘어 자유롭고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예술이 일반적 관념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일반화된 틀을 깨고 작가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여성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기에 예술이 사회의 기존 통념에 변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 여성들은 이러한 천경자의 그림 속 여성 인물의 표현 방식처럼 예술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사회적 유행에 따르면서도 자기 개성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도전적 메이크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천경자의 여성 인물화를 메이크업 관점에서 색채를 매개로 피부톤별로 유형화하여 내포된 여성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그것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해보았다.

천경자의 그림 속 색채는 심상적 의미를 분명히 전달해 주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여성의 주체 의식을 잘 내포하고 있다. 얼굴의 피부색을 표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의 피부 색채가 여성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피부색을 통해 색채의 상징적 의미와 여성의 이미지가 부합되면서 다양한 여성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다. ‘노란 피부톤’은 고독 속 여성의 결연함이 보여지고, ‘하얀 피부톤’은 순백의 피부를 통해 절제와 초연한 여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연한 핑크톤’은 기존의 여성상에 대한 탈피, 지적이면서도 도시적인 여성의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 속 피부톤과 색조 메이크업의 색채는 여성의 이미지를 더 부가시키면서 색채와 이미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천경자의 작품은 창조된 여성의 미, 기준의 속박에서 벗어난 다양한 여성상을 보여준다. 다매체시대 현대의 메이크업 제품, 콘셉트, 광고 등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동일한 색채를 가지고도 새로운 여성상을 표현해내고 있는 천경자의 표현 의도와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술과 뷰티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 서로 연결된 것임으로 콘셉트의 기초자료가 된다. 뷰티 속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통해 브랜드 제품 출시에 미적 아이디어를 줄 수 있으며, 예술작품이 지닌 상징성이 브랜드의 가치에 부가됨으로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또한 AI 챗봇을 기반으로 뷰티 앱을 통해 메이크업의 컨셉을 제안하는 것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40]. 천경자의 인물화 속 여성은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슬픔과 한의 감정도 승화시킬 수 있다는 여성의 강인함이 표현되어 있다. 여성의 다양성은 변화되어 익숙해졌지만, 일반적 상식을 넘어서려는 시도는 누군가의 도전과 노력의 결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여전히 사회 속 남아있는 고정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벗어내고 다양한 개성연출이 트렌드화 된 현재에 천경자라는 작가가 남긴 여성 인물화는 그 다양성에 부합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메이크업 관점에서 동일한 색채감을 통해 다양한 시대를 넘어서는 여성상을 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대에 있어 메이크업은 컬렉션 콘셉트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창의적인 표현으로 응용되고 있어 예술을 통한 발상이 미학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41]. 특히 아트 메이크업 분야에서는 예술을 응용한 표현으로 독창성을 드러내기도 한다[42].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대 메이크업 역시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43]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시대적 유행을 따라가는 것에 멈추지 말고 시대를 선도하는 자유로운 여성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천경자의 그림에 나타난 예술적 상상력의 표현 방식들을 메이크업을 통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메이크업 관련 연구 분야에서는 미술 분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예술적 상상력과 표현방식에 주목하여 작가의 의도와 사회적 의미 등을 메이크업 주체와 연계하여 고찰해보는 논의들이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References

- [1] Jung, Jinkyung, "A Study of Colors for Effective Beauty Makeup,"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Western Painting, Daegu University, p. 54, 2006.
- [2] Kim Hyun-jin, "The Influence of Personal Color Perception and Color Preference on the Psychological Factors and Satisfaction in Purchasing Lip Makeup Product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smetics Science, Konkuk University, p. 77, 2023.
- [3] Jeon, Mijeong, "Analysis of Color Makeup Base and Analysis of Skin Tone Correction Effects According to Product Color,"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lor Science, Hongik University, p. 71, 2014.
- [4] Song Miyoung, Park Okryeon. "Perception Study of Facial Shapes by Makeup among Women in their 20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6, No. 6,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pp. 1543-1557, 2004.
- [5] Song, Jiyeon, "Feminist Painting Research Centered on the Works of Chun Kyungja,"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Fine Arts, Kyunggi University, p. 38, 2001.
- [6] Son, Yerin, "A Study on Makeup Colors According to the Occupation of Women in their 20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lor Science, Hongik University, p. 1, 2017.
- [7] Lee, Younga, "A Study on the Evolution of Korean Women's Image through Female Magazine Cover Model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Design, Konkuk University, p. 21, 2012.
- [8] Kim, Heesook, "History of Beauty Art,"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Ltd., p. 61, 2008.
- [9] Kim, Sohyun, "A Study on Color for the Utilization of Makeup Image Design,"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pp. 7-10, 2018.
- [10] Kwon, Hyungshin, "A Study on Fashion Image Making Using Color,"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lothing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 14-15, 2003.
- [11] Kim, Namhee, "A Study on Art Make up Illustrations Applying Picasso's Color Palette,"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Makeup Art, Hansung University, p. 6, 2002.
- [12] Karen Haller, "The Power of Color," translated by Ahn Jin, Wolbook, p. 62, 2019.
- [13] Park, Kyungmi, "A Feminist Study of Chun Kyungja's Painting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Korean Painting, Kyunggi University, p. 23, 2012.
- [14] Kwon, Gyeonga, "A Study on the Female Image in Chun Kyungja's Art,"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Art History, Myongji University, p. 33, 2013.
- [15] Kwon, Nahyun, "Expression of Sensory Images in Art Makeup Applying Design Principle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Beauty Art, Seokyeong Graduate School, p. 35, 2014.
- [16] Karen Haller, "The Power of Color," translated by Ahn Jin, Wolbook, pp. 50-51, 2019.
- [17] Kim, Hyunsook, "Figures and Allegories in Chun Kyungja's Paintings," Journal of Art History, Art History Research Society, p. 101, 2016.
- [18] Jung, Junghun, "Chun Kyungja's Fantastical Journey," Trees and Forests, p. 61, 2006.
- [19] Lee Hwasoon, Jang Misuk, Ahn Jinkyung, "Makeup Aesthetic Design," Kyungchun Publishing Company, p. 184, 2018.
- [20] Jeon Hwangil, "History of Korean Makeup Culture," Yulhwadang, Seoul, p. 13, 1987.
- [21] Lee Miseong, "A Study on the World of Chun

- Kyungja's Artwork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Fine Arts, Jeju University, p. 25, 2011.
- [22]Han Sumin, "A Study on ChunKyungja's Portraiture,"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Korean Painting, Kyunggi University, p. 24, 2007.
- [23]Jo Mija, "Analysis of Image Makeup Utilizing Color Trends," Asian Beauty Cosmetics Journal, Vol. 16, No. 4, Korea Institute of Dermatological Sciences, pp. 499-507, 2018.
- [24]Kang, Geunyoung, "Analysis of Makeup Image Types and Design Elements in Cosmetics Advertisements Appearing in Domestic Magazines," Journal of Korean Makeup Design, Vol. 13, No. 2, Korean Society of Makeup Design, pp. 49-55, 2017.
- [25]Jang Mihwa, "Analysis of Chanel Cosmetics Trends Associated with Elegance Consciousness," Journal of Korean Makeup Design, Vol. 9, No. 12, Korean Society of Makeup Design, pp. 93-100, 2013.
- [26]Lisa Eldridge, "Makeup Story," translated by So Hee, G1 Hangari, pp. 49-53, 2023.
- [27]Lee, Yoonseon, "Elegance Expressed through Makeup and Hairstyles: Aesthetic Concepts," Journal of Korean Beauty Art Society, Vol. 7, No. 1, Korean Beauty Art Society, pp. 57-68, 2009.
- [28]Kim, Junghui, "Comparison of Character Images through Analysis of Film Costumes, Makeup, and Hairstyle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Fashio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p. 55, 2011.
- [29]Lee, Moonjung, "A Study on Femininity Reflected in the Works of Modern Korean Female Artist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culpture and Fine Arts, Ewha Womans University, pp. 86-87, 2004.
- [30]Oh, Yoonjung, "A Study on Makeup Trends in 2000s Fashion Show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Makeup and Special Effec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pp. 15-18, 2010.
- [31]Kim Jongwon, Oh Inyoung, Jeon Yeonsook, "A Study on Makeup Design Elements by Makeup Image Types in Four Major Fashion Collections," Journal of Korean Makeup Design, Vol. 8, No. 1, pp. 13-23, 2012.
- [32]Choi, Chungsim, "A Study on Purchasing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Whitening Cosmetic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smetology, Chung-Ang University, p. 11, 2007.
- [33]Ma, Gayoung, "A Study on Sexy Icon Fashion Style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Fashion Studies, Dongduk Women's University, pp. 115-116, 2016.
- [34]Lee Hyejeong, Shin Seyoung, "Makeup Images and Color Characteristics Applying Blue," Journal of Beauty Art Management Research, Vol. 5, No. 1, pp. 221-223, 2011.
- [35]Park, Yeonhee, "A Study on the Situational Presentation and Expression of Makeup Colors and Image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Makeup Art, Hansung University, p. 78, 2002.
- [36]Han Sumin,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Female Figures in Chun Kyungja's Paintings," Journal of Basic Design Research, Vol. 22, No. 6,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pp. 517-529, 2021.
- [37]Oh Inyoung, Lee Sumi, Ahn Seongjoon, "Design Ideation for Makeup Fashion Styling," Medician, p. 132, 2021.
- [38]Hong Sunam, Lee Sangeun,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Femme Fatale Image and Smoky Makeup," Journal of Korean Body Beauty Art Society, Vol. 10, No. 28, pp. 25-41, 2009.
- [39]Kim Jungsi, "A Study on Smoky Eye Makeup,"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Makeup Art,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p. 6-7, 2006.
- [40]Kim Heeyoung, Jung Sunmi, Ryu Gihwan, "Study on the Restaurant Recommendation Service App Based on AI Chatbot Using Personalization In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8, No. 4, pp. 263-270, 2020.
- [41]Kim Minjeong, "Idea Generation Techniques for Makeup and Costume Design in Artistic Exp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Clothing and Fashion Design, Kyungsang University, pp. 131-135, 2014.
- [42]Man Won, "A Study on Proposal of Art Makeup Design Applying Kandinsky's Artistic Painting,"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Makeup Art, Hansung University, p. 57, 2022.
- [43]Jung Jaehee, "A Study on the Attributes of Fashion as an Artistic Medium,"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9 No. 2, pp. 413-427, 2023.